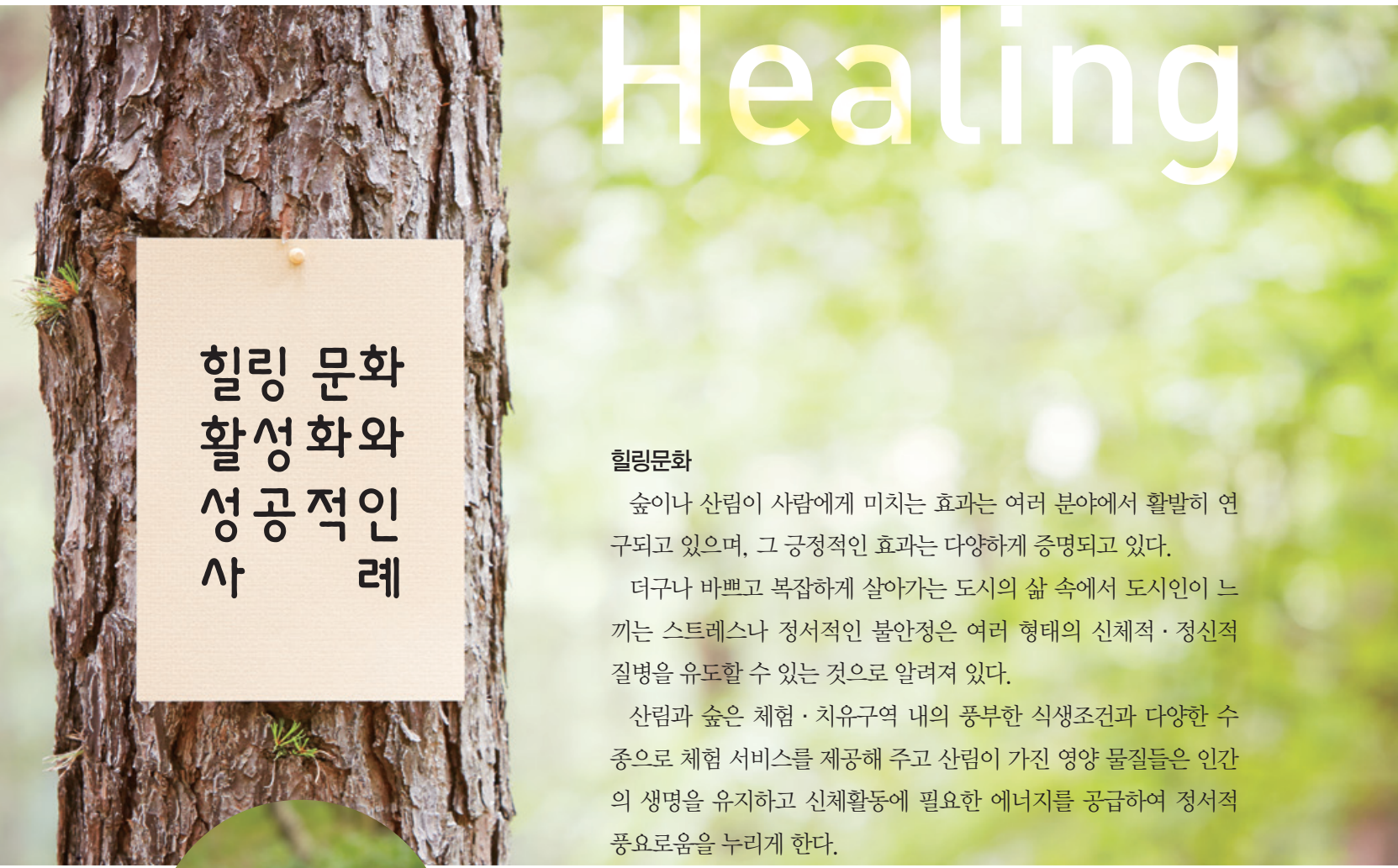

Healing

힐링 문화 활성화와 성공적인 사례

힐링문화

숲이나 산림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그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게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도시의 삶 속에서 도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불안정은 여러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질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과 숲은 체험 · 치유구역 내의 풍부한 식생조건과 다양한 수종으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산림이 가진 영양 물질들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정서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다.

또한 힐링센터는 사회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치료의 장소로서 산림활용이 되고 있으며, 심신의 쾌적함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학생 자유 학기제 확산 등으로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숲이나 산림 · 산촌 체험학습을 통한 심신단련, 정서적 순화, 자연보호 교육 등 자연 친화적 경험을 함으로서 숲이나 산림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된다.

산림이 주는 건강증진 효과는 과학적 · 의학적으로 검증되어있고, 다양한 체험교육, 숲 치유 프로그램의 도입, 힐링 문화 활성화 등 자연 친화적인 여러 욕구들로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시설이나 숲 · 산림의 조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숲(식물)산림지형 및 산림 미기후 활용, 심신의 치유 체험교육, 인체의 반응, 쾌적함, 면역력 향상,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개인 또는 의료관광그룹의 치유 난이도 소요시간의 고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모든 것을 갖추어야한다.

따라서 소득이 수반되는 귀촌 · 귀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고 그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제점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20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만 사업비 전부 또는 보조, 개인은 융자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한계점 노출
- 최근들어 국민들의 치유의 숲에대한 관심도 지속증가와 국민 여가 및 휴양문화에 따른 국가가 전부 치유의 숲 조성에 한계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임야 대상지 여건의 한계와 산림자원이 풍부한 개인 소유 임야의 치유의 숲 조성 필요
- 국가 경제, 국민 산림 휴양 여가 문화활동 차원에서 개인 치유의 숲 조성에도 일정 부분 보조가 있어야 함

공모 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자에 대하여 국 · 공유림, 사유림 구분없이 공모 사업을 통해 참여기회 제공과 융자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적극 지원되어야 하며, 단위 사업비가 30~40억은 개인 부담금으로 치유의 숲 조성시 안정성 문제 노출과 조성 대상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 이행 사항 준수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 한다라면 산림 사업은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산림 휴양 부분에도 산림을 국민 건강 · 휴양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전 환경성 검토「동물상(포유지 · 생태계), 식물상」와 독림가 · 임업후계자 · 신지식인에게도 산을 가꾸는 것에만 보조 융자지원을 한정시키지 말고 유아 숲 체험원, 숲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조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

우 상 태

출생 1944년

주소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함박 산 90-1

약력 2015년「산촌 6차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3차(최종) 사업 심사 발표」, Star Farm 지정, 2015년 중학생 자유 학기제 운영을 위한 청도지역 진로 작업 체험장 지정, 농업회사법인(주)이티지 대표

임업경영내역 독림가
산림 경영(97ha), 친환경 밤(32ha)